

솔밭나눔장터에서 마을기업까지 대전여민회의 실험

마을에서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민양운 대전여민회 사무처장

..

2010년 행정안전부 지원 마을기업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대전여민회의 <중촌동, 평화가 익는 마을 만들기>는 2011년에도 계속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마을기업은 1987년 발족한 대전지역 대표적인 진보여성운동단체인 대전여민회의 주민밀착형 풀뿌리여성운동 10년의 성과를 담고 있는 실험이다. 본 지면을 통해 마을기업이 등장하기까지 대전여민회의 다양한 풀뿌리운동의 실험을 통해 어떻게 마을여성리더들이 성장해 왔는지 정리하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마을여성들이 참여하여 시작하게 된 마을기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여성운동, 일상의 변화에 주목하다

대전여민회는 80년대 후반 비슷한 시기에 창립한 진보적인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조항 신설 등 반여성폭력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고 호주제폐지, 여성할당제 실시를 위해 함께 하면서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전국적인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통해 제도화라는 일정한 성

과를 이룬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운동은 다양한 일상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성평등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작용했다. 여기에는 제도화의 혜택이 소수 자원이 많은 특별한 여성들에게 집중될 뿐 다수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곤궁해지고,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묻지마 사회폭력의 희생대상으로 여성과 아동이 집중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자각이 한 몫을 했다. 제도화운동의 성과와 현실 간의 괴리는 일상의 변화를 통한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풀뿌리여성운동을 잉태하였다.



○ 마을에서 놀자 ~ 대전여민회, 풀뿌리생활 속으로!

대전여민회는 2년간의 활동공백을 딛고 1997년 활동을 재기하면서 당시 IMF 구제금융관리시대 실업여성가장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힘썼다. 한편으로는 1998년부터 둔산지역에서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주민자치강좌와 딸기캠프, 시민역사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01년에는 둔산지역 러브호텔반대싸움에 함께 하는 등 주민참여 풀뿌리운동을 시작하였다.(이렇게 주민밀착 지역운동을 담당했던 대전여민회 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면서 2009년에는 풀뿌리운동센터로 개편하였고, 센터 운영위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풀뿌리여성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1년부터는 본 회 사무실이 있는 중구 중촌동에서 주민밀착형 풀뿌리생활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작은 공원인 솔밭공원에서 솔밭나눔장터와 어린이벼룩시장을 연 4회씩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3년을 꼬박 솔밭



나눔장터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본 건물주가 1층의 7평정도 되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덕분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활용나눔가게 ‘보물창고’를 회원들이 운영하기도 했다. 지금도 해마다 열리는 중촌마을축제의 인기코너로 마을장터가 열리고 있다. 2004년에는 어린이방학캠프와 연극교실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이 평가모임을 하면서 소모임 “동화읽는 엄마모임-아름아리”를 만들었다. 학원 보다는 놀자 캠프나 연극교실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끼리 서로 죽이 맞았던 것이다. 엄마들은 주 1회 정기모임을 하면서 평소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해 보고 싶었던 주제로 “학부모강좌-배워서 애들 주자” 등의 마을강좌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아가며 품앗이로 진행을 하였다. 사방치기 등 전래놀이 교실과 요리교실, 바느질 교실, 몸체조교실, 옥상텃밭교실, 들로 산으로 놀러가기 교실, 어린이경제교실 등등. 그리고 집에서 아이에게 읽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골라 대전여민회에 어린이책사랑방 ‘도토리’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과 보육의 문제는 여성에게 절실한 문제다. 중촌동의 젊은 엄마들은 문제를 개별적으로 학원에 맡기지 않고 함께 풀어내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혼자라면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고민을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어 해 보면서 자신감도 붙고, 내 아이를 넘어 마을의 아이들로까지 시선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활동을 통해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성을 조금은 넘어섰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잘못된 통념에도 맞설 수 있게 되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언니동생으로 만나는 마을여성모임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기운을 냈다.



2005 보물창고 개소식 모습



2001 슬밭나눔장터 내 어린이벼룩장터 모습



학부모강좌 - 공부해서 애들 주자



아시아는 내 친구 - 인도네시아 편

○ 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 - 전업주부에서 사회주부로!

2007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의 개관식이 있었다.

2005년 만들어졌던 마을소모임 "동화읽는 엄마모임-아름아리"가 주축이 되고, 더 많은 중촌동여성들이 마음과 뜻을 모은 결과였다. 당시만 해도 도서관이라는 단어는 입에 쉽게 담기 어려운 말이었다.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나 대학교도서관 정도로 큰 규모에다 '정숙'이라는 단어가 절로 연상될 만큼 엄숙한 공간으로 기억되던 시절이었다.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는 기피인물이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면 쏟아지는 눈총에 질식해 버릴 듯 숨 막힌 공간이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대전지역에서 마을마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 어렸을 적부터 친숙한 책놀이터인 마을도서관에서 함께 아이를 키워보려는 대전

지역 13개 동네 엄마들모임이 2007년, 2008년 앞서거나 뒤서거나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고, 이런 마을어린이도서관들이 모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초기부터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은 “동화읽는 엄마모임 아름아리”의 중심 멤버들이 사무국을 꾸려서 매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마을에서 일찍 뿌리를 내렸다. 여기에는 사서자원활동가 모임, 체험강사단모임, 그림책읽는 모임, 동화읽는 모임, 동화읽어주기 소품제작모임, 오카리나모임, 이동도서관진행모임 등 엄마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했던 것이 한몫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된 소모임의 팀장과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의 집단책임구조를 만들었던 것도 일찍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매년 인문학과 도서관이용 실무내용을 적절하게 조합한 도서관학교와 다양한 마을강좌는 도서관에 참여하는 마을여성들이 내 아이에게만 쫓혀있던 관심을 마을의 아이들로 넓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매년 한 해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을 통해 마을도서관에 참여함으로써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을도서관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을지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왔다.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 개소식 장면



중촌마을축제 중 책읽는 오두막 운영모임



어린이도서관짜장 그림책읽는 모임 활동



2004중촌동마을소모임 - 아름아리 활동모습

지난 4년 간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을 키운 마을 여성들은 어느새 마을에서 여성 리더그룹으로 자리를 잡았고,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넘어 마을로 관심과 활동영역을 확장해 왔다.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성장의 기쁨이 따라왔고, 성장하는 만큼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했고,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업주부에서 사회주부로!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마을도서관에서 엄마들도 성장했다. “나도 크면 엄마처럼 도서관 사서 할거야”라고 어떤 집의 딸이 한 말에 우리 모두 감동하며 신나게 활동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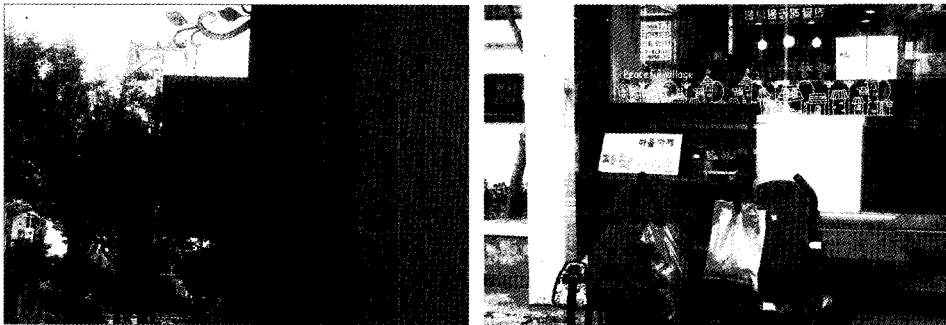


2008년 <풀뿌리여성리더십강화 프로젝트> 중 부산 반송동 마을공동체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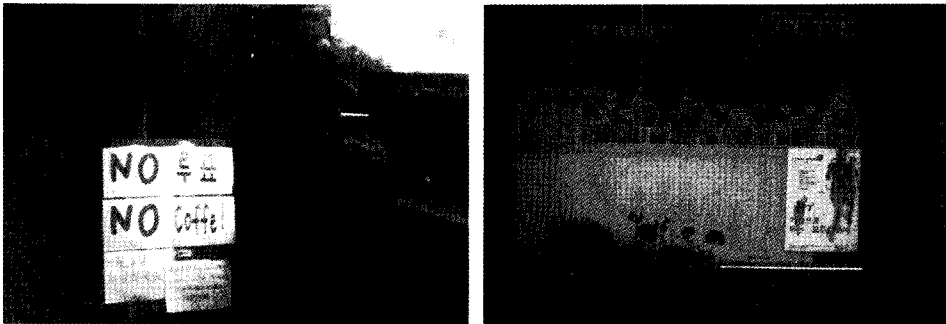
○ **마을까페도 만들자! - 공정무역커피, 중촌동대안화페 '쥬', 품앗이 마을강좌...**

어린이도서관짜장에서 성장한 중촌동마을여성들은 마을활동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키워왔다. 이런 바람을 타고 중촌동에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2009년 12월 건물주가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해 주고, 한국여성재단과 태평양복지재단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마을까페 자작나무숲이 중촌동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어린이도서관짜장이 어린이들의 책놀이터였다면 어른들을 위한 공동활동 공간으로 마을까페를 만들게 되었다. 마을까페에서는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여성자 활작업장 '너른마당'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동전뜨개지갑과 가족공예품, 전통매듭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기도 한다. 판매에서 얻은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마을의 청소년들과 마을여성을 위한 기금으로 쓰기위해 부지런히 적립하고 있다. 마을까페에서는 누구나 강사가 되어 마을 품앗이 강좌를 연다. 손바느질로 인형만들기 강좌를

열기도 하고, 당근머핀 강좌를 열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기도 한다. 마을 문화공간 마을카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10시부터 밤9시 열고 있다. 현재 13명의 자원활동 카페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20대 청년부터 50대 전업주부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마을카페 운영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카페매니저 M·T에서 마을카페 운영규칙도 만들었다. 운영규칙 전문에는 <본 카페는 대전여민회 풀뿌리운동센터 부설기관으로서 주민의 힘으로 운영하여 마을기금을 조성, 마을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마을카페는 마을경제활동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 중촌동이라는 작은 동네에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카페를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커피판매 수익도 올라 마을기금을 더 많이 적립해 가는 마을카페의 경험은 마을에 또 다른 실험을 불러왔다. 2010년 7



마을카페 전경 '자작나무숲'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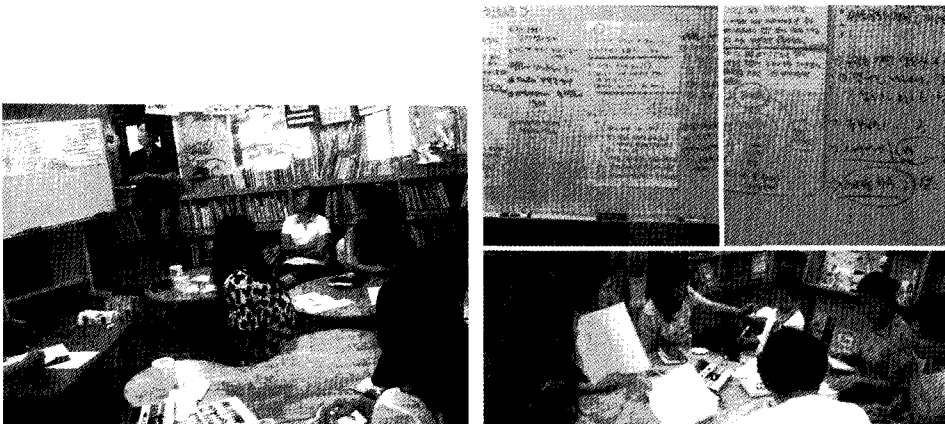


2010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캠페인 모습

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공모에 중촌동 마을만들기를 내용으로 응모하여 대전시 중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었다.(2011년에는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풀뿌리여성운동, 경제를 이야기 하다.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실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전여민회의 풀뿌리여성운동의 10년 역사의 성과를 돌아보며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마을기업의 주체인 마을여성리더그룹의 형성과 성장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2010년 6월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의 운영위원과 소모임참여주민들과 마을까페자작나무숲에 참여하는 카페매니저들이 함께 모여 <마을리더학교-즐거운 리더, 행복한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마을리더그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중촌동의 5년 설계를 하면서 현재 마을에서 어떤 활동이 우선하여 필요한지 생각을 모았다. 그 결과 <청소년이 살고 싶은 마을>, <공동체 경제가 실험되는 마을>을 우선해서 만들기로 했다. <청소년이 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욕구는 어린이도서관짜장에서 자란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 됨에 따라 자라난 욕구이다. 이에 따라 중촌동에는 새로운 마을소모임 <청소년과 친구하고 싶은 어른모임-통통통>이 만들어져 월 1회 청소년의 심리와 성, 가족 등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과 친구하고 싶은 마을어른들을 위한 강좌-통하고 통하고 통하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2010 <마을리더학교 - 즐거운 리더, 행복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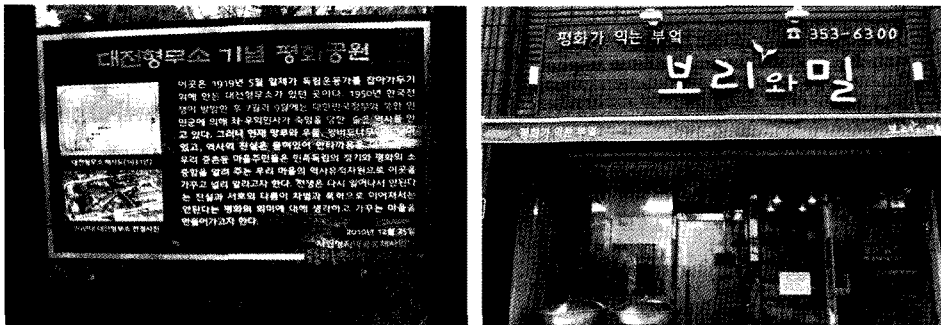
〈공동체경제가 실험되는 마을〉은 가치 있는 마을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전업주부로 있던 마을여성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 먼저 궁리하는 것이 돈을 벌기위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란 단순반복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벗어날 수 없는 암담한 현실뿐이다. 그러나 이미 가치 있는 마을활동이 가져다주는 자기성장과 가족의 성장, 마을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 여성들은 의미도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대안경제, 공동체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안에서의 경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들려 온 2010 행정안전부 지원 자립형지역공동체시범사업(2011년부터 마을기업사업으로 명칭변경)은 사업의 취지에서나 목표에서나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사업과 같았다. 본 회 플뿌리운동센터 운영위에서는 마을리더학교에서의 주민욕구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제출하여 대전시 중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0, 2011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 중촌동, 평화가 익는 마을 만들기

2010 자립형지역공동체 시범사업을 공모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향토, 관광,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주민필요에 의해 주민주도로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010.10 사업시행지침서 1~2쪽)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11년 명칭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마을기업의 개념을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2011.2 대전시 마을기업육성사업설명회 자료 5쪽)

본회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진행했던 마을조사를 토대로 1919년 5월 일제에 의해 독립운동을 잡아가두기 위해 만들었던 대전형무소의 역사를 중촌동의 역사자원으로 선정하였다. 안창호, 김창숙, 여운형 선생 등 대전형무소에 투옥되어서도 독립운동을 계속 해 간 역사와 해방 후 좌·우익 갈등으로 정치범특별감옥이 되었던 역사, 1960년 6·25 전쟁과 좌·우익 학살사건, 신영복 선생 등 70년대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한국사회 근현대를 관통하는 갈등의 중심지로서 대전형무소는 서

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중촌동의 과거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평화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해 낼 뿐만 아니라 평화를 확장해 나가는 마을사업으로 “중촌동, 평화가 익는 마을 만들기”를 마을기업으로 기획하게 된 것이다. 중촌동을 평화가 익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사업팀으로 중촌마을역사탐험대 ‘그루터기’와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이 꾸려졌다. 2010년 11월부터 각 팀에는 팀장1인과 참여자2인씩 총 6인의 주민들과 본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1인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었다. 총 89시간의 교육과 제품개발 과정을 거쳐 대전형무소 기념 평화공원을 정비하고 마을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편, 2011년 1월 26일 대전시 중구 중촌동 100-13번지에 마을기업 -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을 개소하여 우리밀 발효빵과 우리밀쿠키, 우리옛기름 식혜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었다.



○ 마을기업 -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 (이하 ‘보리와 밀’)

마을기업 ‘보리와 밀’은 중촌동 마을여성리더그룹의 바람에서부터 출발한 사업이다. 이웃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평화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우리밀과 우리농산물로 12시간 저온 발효시킨 발효빵 4종류와 우리밀쿠키, 우리옛기름 식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발효빵과 쿠키는 1,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 식혜는 500ML 1병 2,000원, 1.5 L 1병 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박스에 1,500원 하는 선물세트도 판매하고 있다.

우리밀 발효빵 4종류에는 우리밀, 우리단호박, 우리옥수수, 우리보리빵이 있다. 모두 우리밀과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고 있고, 유화제나 팽창제 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

지 않는다. 당일 생산하여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밀 등 주재료가 갖고 있는 안전성 외에도 12시간 저온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 소화엔 좋은 상태로 반죽이 변화하게 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먹을거리다. 주로 단체에서 행사용 간식이나 선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침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에 간식이나 수험생 야식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수제쿠키인 우리밀쿠키도 달지 않아 호응이 좋다. 그리고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엿 기름으로 직접 만드는 식혜도 반응이 좋다. 직접 중촌동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과 전화주문, 혹은 11월까지 매 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갈마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서구시민벼룩장터에서 이동 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보리와 밀’은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몸에 좋은 발효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마을캠페인 “애들아, 발효빵 먹고 학교가자”를 한달간 진행한 적이 있다. 바쁜 아침시간에 아침밥을 거르기 일쑤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어 마을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했던 것이다. 하반기에는 마을 안의 가게들과 연계하여 마을캠페인2 “이왕이면 동네가게를 이용해요”를 진행하려 한다. 중촌동과 도로 하나를 앞둔 목동에 SSM이 입점하게 되어 동네가 발각 뒤집혔다. 동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힘을 합쳐 맞서야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마을가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마을가게들은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주민들은 이를 이용하고, 가게주인들은 마을에서 얻는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우리 동네가 부유한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것이 참 특별할 것 같다.)

또한 식품안전과 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주제로 하는 마을 월례강좌를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의 정기이용회원 제도를 기획하여 보리와 밀의 가치에 함께하는 주민들의 모임을 만들려 한다. 우리에게 주민들은 우리밀발효빵을 사주는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고 싶은 평화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주민모임이 토대가 되어 차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경제활동단위로 전환을 모색하려 한다. ‘보리와 밀’은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밀발효빵의 가치를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보리와 밀’의 수익을 높히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수익은

마을에 돌아가게 하는 마을 순환형 경제를 꿈꾼다. (보리와 밀 제품 구매와 관련한 연락처는 042-353-6300)

중촌마을역사탐험대 '그루터기'는 매 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에 대전형무소 기념 평화공원을 청소하고 있다. 녹지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촌동에서 손바닥 공원처럼 작은 규모로 이름도 없던 이곳에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를 10년 간 했다. 그 동안 이 공원에서 마을축제를 하고 마을장터를 열었다.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평화공원이라고 이곳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곳을 돌보지 않아 쓰레기가 넘친다. 1984년 대전교도소가 유성 대정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전형무소의 모든 역사는 사라졌다. 망루 하나와 우물 한 개가 남아 있을 뿐이다. 망루는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우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음습하게 방치되어 있다. 그루터기 팀은 이곳을 매 주 찾아 쓰레기를 줍고, 대전형무소에 관련된 더 많은 역사자료를 찾아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용, 청소년용, 어른용의 중촌마을역사탐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도서관장장 -> 대전형무소 기념 평화공원 ->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로 이어지는 평화마을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코스인 보리와 밀에서는 우리밀발효빵과 우리밀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면서 식품안전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마을투어비용은 15명 이내 한 팀 당 5만원이고, 발효빵체험비는 1인당 5천원 (쿠키1봉지와 발효빵 1개를 선물로 증정)이다.



마을기업 '보리와 밀'이 시작된 지 이제 4개월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라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경험이 없던 마을여성들이 모여 공동으로 우리밀 발효빵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햇살 먹은 우리밀발효빵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이제 막 세상에 내놓고 있는 단

계다. 마을 골목안에 위치한 점포의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지, 함께 출발한 18개 마을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시장은 어떻게 형성할지... 명쾌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서 지난 10년간 함께 마을에서 활동하며 성장해온 마을리더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경제공동체를 마을에서 이뤄나가고 싶다는 강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유리한 환경이다.

경력단절 여성들, 이주여성들, 한부모여성들과 청년실업자들, 젊은 노인들 등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범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공동운영해 가는 협동의 경제를 통해 좋은 이웃들과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마을로 중촌동을 만들어가고 싶다.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길러내고 싶고, 젊은 날부터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늙어가며 추억을 같이하는 평화로운 노년을 맞고 싶다.

마을기업 '보리와 밀' 이 열어 갈 평화가 익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왕이면 우리밀발효빵을 애용해 주는 바람을 담아 글을 마친다.